

2024
고2 문학
해냄

2024 고2 문학 해냄 | 4(4)(1) 조침문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조침문>의 전체 및 부분의 내용과 그 의미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주로 기호를 활용해 특정 부분의 내용과 그 의미를 묻거나, 제문의 형식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는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작품의 주제를 바탕으로 각 부분의 내용과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세차(維歲次)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미망인(未亡人) 모씨(某氏)는 두어 자 글로써 침자(針子)에게 고하노니, 인간 부녀(人間婦女)의 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대,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회(情懷)가 남과 다름이라. 오호 통재(痛哉)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금(于今) 이십칠 년이라. 어이 인정(人情)이 그렇지 아니 하리요.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行狀)과 나의 회포(懷抱)를 충충히 적어 영결(永訣)하노라.

연전(年前)에 우리 시삼촌께옵서 동지상사 낙점(落點)을 무르와,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쌍을 주시거늘, 친정과 원근 일가(一家)에게 보내고, 비복(婢僕)들도 쌍쌍이 나누어 주고, 그중에 너를 택하여 손에 익히고 익히어 지금까지 해포 되었던니, ㉢슬프다, 연분(緣分)이 비상(非常)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되, 오직 너 하나를 연구(年久)히 보전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迷惑)하지 아니하리오.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도다.

나의 신세 박명(薄命)하여 슬하에 한 자녀(子女) 없고, 인명(人命)이 흉완(凶頑)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家産)이 빈궁하여 침선(針線)에 마음을 붙여, 널로 하여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 오

늘날 너를 영결(永訣)하니, 오호 통재라,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로다.

㉥아깝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바늘이여. 너는 미묘한 품질(品質)과 특별한 재치(才致)를 가졌으니, 물중(物中)의 명물(名物)이요, 철중(鐵中)의 쟁쟁(錚錚)이라.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百代)의 협객이요, 굳세고 끈기는 만고(萬古)의 충절(忠節)이라. 추호(秋毫)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고, 뚜렷한 귀는 소리를 듣는 듯한지라. 능라(綾羅)와 비단에 난봉(鸞鳳)과 공작을 수놓을 제, 그 민첩하고 신기함은 귀신이 돕는 듯하니, 어찌 인력(人力)의 미칠 바리오.

오호 통재라, 자식이 귀하나 손에서 놓일 때도 있고, 비복이 순하나 명(命)을 거스릴 때 있나니, 너의 미묘한 재질(才質)이 나의 전후(前後)에 수응(酬應)함을 생각하면, ㉧자식에게 지나고 비복에게 지나는 지라. ㉨천은(天銀)으로 집을 하고, 오색(五色)으로 파란을 놓아 곁고름에 채였으니, 부녀의 노리개라. 밥 먹을 적 만져 보고 잠잘 적 만져 보아, 너로 더불어 벗이 되어, 여름 낮에 주렴(珠簾)이며, 겨울밤에 등잔을 상대하여,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공그릴 때에, 겹실을 꿰었으니 봉미(鳳尾)를 두르는 듯, 땀땀이 떠 갈 적에, 수미(首尾)가 상응하고, 술술이 붙어 내매 조화(造化)가 무궁하다. 이생에 백년 동거(百年同居)하렸더니, 오호 애재(哀哉)라, 바늘이여.

금년 시월 초십일 술시(戌時)에, 희미한 등잔 아래서 관대 깃을 달다가, 무심중간(無心中間)에 자곤동 부러지니 깜짝 놀라와라. 아야 아야 바늘이여, 두 동강이 났구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魂魄)이 산란하여, 마음을 뺏아 내는 듯, 두골(頭骨)을 깨쳐 내는 듯, 이윽도록 기색혼절(氣塞昏絕)하였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 보고 이어 본들 속절없고 하릴없다. 편작의 신술(神術)로도 장생불사(長生不死) 못하였네. 동네 장인(匠人)에게 때이런들 어찌 능히 때일손가. 한 팔을 베어 낸 듯, 한 다리를 베어 낸 듯, 아깝다 바늘이여, 옷섰을 만져 보니, 꽃혔던 자리 없네. 오호 통재라, 내 삼가지 못한 탓이로다.

무죄(無罪)한 너를 마치니, ㉩백인이 유아이사(由我而死)라, 뉘를 한(恨)하며 뉘를 원(怨)하리오. 능

란(能爛)한 성품(性品)과 공교(工巧)한 재질을 나의 힘으로 어찌 다시 바라리오. 절묘한 의형(儀形)은 눈 속에 삼삼하고, 특별한 품재(稟才)는 심회(心懷)가 삭막(索寞)하다. 네 비록 물건이나 무심하지 아니하면, 후세에 다시 만나 평생 동거지정(平生同居之情)을 다시 이어, 백년고락(百年苦樂)과 일시생사(一時生死)를 한가지로 하기를 바라노라. 오호 애재라, 바늘이여.

- 유씨 부인, <조침문>

1. <보기>를 고려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 작품은 바늘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제문의 형식으로 표현한 수필로서 조선 시대 국문 수필이다. 조선 시대에 규방에서 생활하던 여성들에게 바늘은 단순한 사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이 외롭게 살아야 했던 글쓴이는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이었 을 뿐만 아니라, 흐트러지려는 마음을 가다듬 으면서 인고의 세월을 견뎠다. 즉 글쓴이에게 바늘은 그가 살아온 삶의 자취가 담긴 존재이 다. 이처럼 자신의 삶이 응축되어 있는 바늘이 부러졌을 때 느꼈던 안타까움과 비통함이 이 작품에 흐르는 주된 정서이며 그 속에는 먼저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홀로 살아가야 하는 여인의 한도 담겨 있다.

- ① '유세차(維歲次)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을 통해 제문의 형식을 따랐지만, 실제 제문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미망인(未亡人)', '슬하에 한 자녀(子女) 없고, 인명(人命)이 흉완(凶頑)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를 통해 자녀가 병으로 일찍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가산(家産)이 빈궁하여 침선(針線)에 마음을 붙여, 널로 하여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를 통해 글쓴이의 신분이 평민이라서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迷惑)하지 아니하리오.'를 통해 바늘이 글쓴이

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혹하였으나 결국 바늘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魂魄)이 산란하여, 마음을 뺏아 내는 듯, 두골(頭骨)을 깨쳐 내는 듯'을 통해 바늘이 부러진 것이 두 개의 뼈가 부러진 것만큼 슬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상을 잃은 슬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제문 형식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 당시에는 여성들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목적으로 바느질을 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 바늘에 대한 작가의 애착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 ④ ㉣: 바늘을 애지중지하는 작가의 마음을 알 수 있다.
- ⑤ ㉤: 작가가 바늘을 부러뜨린 자신을 탓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윗글의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망인'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인임을 알 수 있다.
- ② 바늘 한 개를 오랜 기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심성 있고 알뜰한 성품임을 알 수 있다.
- ③ 선물 받은 바늘을 친척과 비복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바늘에 별로 관심이 없고 바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④ 가산이 빈궁하여 침선에 마음을 붙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집안이 가난하여 바느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시삼촌이 벼슬을 지내고 북경에 다녀왔으며 자신의 심정을 글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지적인 능력을 갖춘 사대부 집안의 여인이라 할 수 있다.

4.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바늘이 제작되는 과정과 작자와 함께 살아 온 지난 시절을 떠올리며, 바늘에 대한 애절한 심정을 담아내고자 하는 글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작자와 바늘의 인연이 평범하지 않음을 언급하며, 다른 바늘처럼 부러뜨리고 말았다는 점에서 자책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바늘은 작자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았으나, 작자는 그런 바늘을 소중히 아꼈다는 점에서 섭섭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바늘이 가진 외모를 칭찬함과 동시에 본인의 침선에 대한 능력이 뛰어남을 언급하며, 바늘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바늘이 자식이나 비복보다 낫다고 언급하며, 바늘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내고 있다.

5. 윗글의 내용을 '제문'의 형식에 따라 정리해 볼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문		<조침문>
'유세차(維歲次)'로 시작하며 글을 쓰게 된 동기나 배경을 밝힘.	처음	㉠
죽은 사람의 행적을 기술하거나 찬양하며 살아 있는 사람의 감정을 드러냄.	중간	㉡
슬픔의 정을 담아 죽은 이의 명복을 빌어 주고, '상향(尙饗)'이라는 단어로 글을 맺음.	끝	㉢

- ① ㉠: '유세차(維歲次)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로 시작함.
- ② ㉡: 바늘이 부러져 글을 쓰게 되었음을 밝힘.
- ③ ㉢: 바늘의 행적을 기술하거나 찬양하지 않고 바늘을 얻게 된 내력을 자세히 알림.
- ④ ㉣: 바늘이 부러지게 된 과정과 그에 따른 슬픔을 드러냄.
- ⑤ ㉤: '상향(尙饗)'이라는 단어로 글을 맺지 않고, '오호 애재라, 바늘이여.'로 끝남.

신유형

<조침문>의 표현상(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 전체 및 부분의 내용과 그 의미를 묻는 문제, 작품에 활용된 어휘의 의미를 묻는 문제, 작품의 갈래 특성을 묻는 문제, <조침문>을 바탕으로 작품 감상 관점을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조침문>의 주제를 바탕으로 작품의 내용과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 갈래 특성 등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세차(維歲次)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미망인(未亡人) 모씨(某氏)는 두어 자 글로써 침자(針子)에게 고하노니, 인간 부녀(人間婦女)의 손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대,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회(情懷)가 남과 다름이라. 오호 통재(痛哉)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가운데 지닌 지 우금(于今) 이십칠 년이라. 어이 인정(人情)이 그럴지 아니하리오.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行狀)과 나의 회포(懷抱)를 총총히 적어 영결(永訣)하노라.

연전(年前)에 우리 시삼촌께옵서 동지상사 낙점(落點)을 무르와,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쌍을 주시거늘, 친정과 원근 일가(一家)에게 보내고, 비복(婢僕)들도 쌍쌍이 나누어 주고, 그중에 너를 택하여 손에 익히고 익히어 지금까지 해포 되었던니, 슬프다, 연분(緣分)이 비상(非常)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되, 오직 너 하나를 연구(年久)히 보전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迷惑)하지 아니하리오.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다.

나의 신세 박명(薄命)하여 슬하에 한 자녀(子女) 없고, 인명(人命)이 흉완(凶頑)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家産)이 빈궁하여 침선(針線)에 마음을 붙여, 널로 하여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 오늘날 너를 영결(永訣)하니, 오호 통재라,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로다.

아깝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바늘이여. 너는 미묘

한 품질(品質)과 특별한 재치(才致)를 가졌으니, 물중(物中)의 명물(名物)이요, 철중(鐵中)의 쟁쟁(錚錚)이라.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百代)의 협객이요, 굳세고 곧기는 만고(萬古)의 충절(忠節)이라. 추호(秋毫)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고, 뚜렷한 귀는 소리를 듣는 듯한지라. 능라(綾羅)와 비단에 난봉(鸞鳳)과 공작을 수놓을 제, 그 민첩하고 신기함은 귀신이 돕는 듯하니, 어찌 인력(人力)의 미칠 바리오.

오호 통재라, 자식이 귀하나 손에서 놓일 때도 있고, 비복이 순하나 명(命)을 거스릴 때 있나니, 너의 미묘한 재질(才質)이 나의 전후(前後)에 수응(酬應)함을 생각하면, 자식에게 지나고 비복에게 지나는지라. 천은(天銀)으로 집을 하고, 오색(五色)으로 파란을 놓아 곁고름에 채였으니, 부녀의 노리개라. 밥 먹을 적 만져 보고 잠잘 적 만져 보아, 너로 더불어 벗이 되어, 여름 낮에 주렴(珠簾)이며, 겨울밤에 등잔을 상대하여,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공그릴 때에, 겹실을 꿰었으니 봉미(鳳尾)를 두르는 듯, 땀땀이 떠 갈 적에, 수미(首尾)가 상응하고, 술술이 붙여 내매 조화(造化)가 무궁하다. 이생에 백년 동거(百年同居)하렸더니, 오호 애재(哀哉)라, 바늘이여.

금년 시월 초십일 술시(戌時)에, 희미한 등잔 아래서 관대 깃을 달다가, 무심중간(無心中間)에 자곤동 부러지니 깜짝 놀라와라. 아야 아야 바늘이여, 두 동강이 났구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魂魄)이 산란하여, 마음을 뺏아 내는 듯, 두골(頭骨)을 깨쳐 내는 듯, 이윽도록 기색혼절(氣塞昏絕)하였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 보고 이어 본들 속절없고 하릴없다. 편작의 신술(神術)로도 장생불사(長生不死) 못하였네. 동네 장인(匠人)에게 때이런들 어찌 능히 때일손가. 한 팔을 베어 낸 듯, 한 다리를 베어 낸 듯, 아깝다 바늘이여, 옷섶을 만져 보니, 꽃혔던 자리 없네. 오호 통재라, 내 삼가지 못한 탓이로다.

무죄(無罪)한 너를 마치니, 백인이 유아이사(由我而死)라, 뉘를 한(恨)하며 뉘를 원(怨)하리오. 능란(能爛)한 성품(性品)과 공교(工巧)한 재질을 나의 힘으로 어찌 다시 바라리오. 절묘한 의형(儀形)은 눈속에 삼삼하고, 특별한 품재(稟才)는 심회(心懷)가 삭막(索寞)하다. 네 비록 물건이나 무심하지 아니하면, 후세에 다시 만나 평생 동거지정(平生同居之情)을 다시 이어, 백년고락(百年苦樂)과 일시생사(一時生死)를 한가지로 하기를 바라노라. 오호 애재라, 바

늘이여.

- 유씨 부인, <조침문>

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로 다른 대상을 비교함으로써 우열을 정하고 평가하고 있다.
- ② 대상을 훌륭하다고 찬양하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칭찬하고 흡족해하고 있다.
- ③ 대상의 상황과 반대되는 고사를 인용하여 주제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대상과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인생사의 굴곡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 ⑤ 깊고 애달픈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대상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드러내고 있다.

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문의 형식을 차용하여 바늘에 대한 감정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글이다.
- ② 조선 시대 여성이 창작한 국문 수필의 백미로 꼽히는 작품으로 작자 미상이다.
- ③ 4음보의 가사체 율격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글쓴이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다양한 표현상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으며, 영탄법, 대구법, 직유법 등이 두루 사용되고 있다.
- ⑤ <규중칠우쟁론기>와 같이 규방에서 여성들에게 친숙한 사물을 인격적 존재로 간주하여 표현하고 있다.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늘이 부러져 글을 쓰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② 섬세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③ 대상을 의인화하여 작품의 관념성과 규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제재를 중심으로 글쓴이의 심리가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⑤ 영탄, 대구, 열거 등을 통해 글쓴이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9. 윗글에 사용된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들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비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 ㄴ. 대구법과 열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 ㄷ. 영탄법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ㄹ. 대상을 의인화하여 글쓴이의 애절한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ㅁ. 바늘이 부러졌을 때의 심정을 과장되게 서술하여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다.
- ㅂ. 운율을 가진 가사체 문장을 배합하여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글 전체를 생동감 있게 만들고 있다.

- ① ㄱ, ㄴ, ㄷ, ㅂ
- ② ㄱ, ㄷ, ㄹ, ㅁ
- ③ ㄱ, ㄷ, ㄹ, ㅁ, ㅂ
- ④ ㄴ, ㄷ, ㄹ, ㅁ, ㅂ
- ⑤ ㄱ, ㄴ, ㄷ, ㄹ, ㅁ, ㅂ

1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교술 갈래는 실재하는 사실을 통해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갈래로 다른 갈래에 비해 표현과 형식이 자유롭다. 교술 갈래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 수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에 들어 한문 수필이 본격적으로 창작되었고, 훈민정음 창제 후에는 이전보다 다양해진 내용과 형식의 국문 수필이 등장하였다. 국문 수필 가운데에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소재로 진솔한 삶의 모습을 그린 작품들이 많다. 이들의 섬세한 감정과 우아한 표현은 교술 산문 문학에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 ① 바늘에 대한 심회를 우아하고 감각적인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
- ② 바늘을 잃은 슬픔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제문의 형식을 빌려왔다고 할 수 있군.
- ③ 글쓰기가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한 소회를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교술 갈래라고 할 수 있겠어.
- ④ 바늘이 부러졌을 때 작가가 느끼는 안타까움과 비통함은 의지할 곳 없는 당시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바늘에 대한 애도의 뜻을 더욱 경건한 분위기로 나타내기 위해 한문으로 창작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세차(維歲次)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미망인(未亡人) 모씨(某氏)는 두어 자 글로써 침자(針子)에게 고하노니, 인간 부녀(人間婦女)의 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대,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회(情懷)가 남과 다름이라. ㉠오호 통재(痛哉)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금(于今) 이십칠 년이라. 어이 인정(人情)이 그렇지 아니 하리요.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行狀)과 나의 회포(懷抱)를 총총히 적어 영결(永訣)하노라.

연전(年前)에 우리 시삼촌께옵서 동지상사 낙점(落點)을 무르와,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쌍을 주시거늘, 친정과 원근 일가(一家)에게 보내고, 비복(婢僕)들도 쌍쌍이 나누어 주고, 그중에 너를 택하여 손에 익히고 익히어 지금까지 해포 되었더니, 슬프다, 연분(緣分)이 비상(非常)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되, 오직 너 하나를 연구(年久)히 보전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迷惑)하지 아니하리오.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도다.

나의 신세 박명(薄命)하여 슬하에 한 자녀(子女) 없고, 인명(人命)이 흉완(凶頑)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家産)이 빈궁하여 침선(針線)에 마음을 붙여, 널로 하여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 오늘

날 너를 영결(永訣)하니, 오호 통재라,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다.

아깝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바늘이여. 너는 미묘한 품질(品質)과 특별한 재치(才致)를 가졌으니, ㉠ 물중(物中)의 명물(名物)이요, 철중(鐵中)의 쟁쟁(鏗鏘)이라.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百代)의 협객이요, 굳세고 곧기는 만고(萬古)의 충절(忠節)이라. ㉡ 추호(秋毫)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고, 뚜렷한 귀는 소리를 듣는 듯한지라. 능라(綾羅)와 비단에 난봉(鸞鳳)과 공작을 수놓을 제, 그 민첩하고 신기함은 귀신이 돕는 듯하니, 어찌 인력(人力)의 미칠 바리오.

오호 통재라, 자식이 귀하나 손에서 놓일 때도 있고, 비복이 순하나 명(命)을 거스릴 때 있나니, 너의 미묘한 재질(才質)이 나의 전후(前後)에 수응(酬應)함을 생각하면, 자식에게 지나고 비복에게 지나는지라. 천은(天銀)으로 집을 하고, 오색(五色)으로 파란을 놓아 곁고름에 채웠으니, 부녀의 노리개라. 밥 먹을 적 만져 보고 잠잘 적 만져 보아, 너로 더불어 벗이 되어, 여름 낮에 주렴(珠簾)이며, 겨울밤에 등잔을 상대하여, ㉢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공그릴 때에, 겹실을 꿰었으니 봉미(鳳尾)를 두르는 듯, 땀땀이 떠 갈 적에, 수미(首尾)가 상응하고, 솔솔이 불어 내매 조화(造化)가 무궁하다. 이생에 백년 동거(百年同居)하렸더니, 오호 애재(哀哉)라, 바늘이여.

금년 시월 초십일 술시(戌時)에, 희미한 등잔 아래서 관대 깃을 달다가, 무심중간(無心中間)에 자곤동 부러지니 깜짝 놀라와라. 아야 아야 바늘이여, 두 동강이 났구나. ㉣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魂魄)이 산란하여, 마음을 뺏아 내는 듯, 두골(頭骨)을 깨쳐 내는 듯, 이윽토록 기색혼절(氣塞昏絕)하였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 보고 이어 본들 속절없고 하릴없다. 편작의 신술(神術)로도 장생불사(長生不死) 못하였네. 동네 장인(匠人)에게 때이런들 어찌 능히 때일손가. 한 팔을 베어 낸 듯, 한 다리를 베어 낸 듯, 아깝다 바늘이여, 옷섶을 만져 보니, 꽃혔던 자리 없네. 오호 통재라, 내 삼가지 못한 탓이로다.

무죄(無罪)한 너를 마치니, 백인이 유아이사(由我而死)라, 뉘를 한(恨)하며 뉘를 원(怨)하리오. 능란(能爛)한 성품(性品)과 공교(工巧)한 재질을 나의 힘으로 어찌 다시 바라리오. 절묘한 의형(儀形)은 눈속에 삼삼하고, 특별한 품재(稟才)는 심회(心懷)가 삭막(索寞)하다. 네 비록 물건이나 무심하지 아니하면, 후세에 다시 만나 평생 동거지정(平生同居之情)

을 다시 이어, 백년고락(百年苦樂)과 일시생사(一時生死)를 한가지로 하기를 바라노라. 오호 애재라, 바늘이여.

- 유씨 부인, <조침문>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영탄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 ② ㉡: 대구법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주고 있다.
- ③ ㉢: 의인법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④ ㉣: 열거법을 활용하여 대상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⑤ ㉣: 과장법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심정을 극대화하고 있다.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했다.
- ② 제재를 다른 대상에 비유한 표현이 있다.
- ③ 섬세하고 다정다감한 문체를 통해 정서를 표현한다.
- ④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비통한 정서를 고조시켰다.
- 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숙한 소재가 등장한다.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자성어를 활용하여 재회에 대한 기약을 소망하고 있군.
- ② 귀신과 하늘이 시기할 정도로 바늘의 재주가 뛰어남을 드러내는군.
- ③ 감탄사를 활용하여 대상이 부러지는 순간의 정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군.
- ④ 제문을 쓰는 취지와 제문의 중심 내용을 밝혀 바늘과의 인연과 그에 대한 슬픔을 말하고 있군.
- ⑤ 글쓴이는 섬세하고 치밀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바늘을 살아 숨 쉬는 생명체처럼 표현하였군.

14. <보기>는 윗글을 읽고 친구들끼리 나눈 대화이다. 대화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일석: 윗글은 당시 여인들의 생활상을 세밀하게 드러낸 작품으로 ①**작가가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한 소회를 제문 형식을 빌려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교술 갈래라고 할 수 있어.

이석: 아, 그렇구나. ②**바늘을 의인화하여 바늘을 잃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죽은 이를 추모하기 위해 쓰는 제문의 형식을 빌려 온 것이구나.**

삼석: 그리고 이 작품은 ③**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특히, 영탄적인 어조를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야.**

사석: 또한, ④**산문이면서도 연속된 대구 형식, 열거 등을 통해 운문적 특징을 보이고도 있어. 뿐만 아니라, 과장법을 활용해 바늘의 재주를 칭찬하기도 하고, 바늘을 잃은 슬픔을 극대화하기도 해.**

오석: 그렇구나. ⑤**이 작품의 작가가 여성임을 고려한다면 여성 특유의 절제된 표현과 문답하는 형식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것도 인상적이야.**

15. 윗글에 나타난 필자의 글쓰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의 직접적인 노출을 자제하고 있다.
- ② 유사한 문장 구조나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적 사용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대상을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대상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 ④ 감각적 묘사와 상세한 서술 등을 통해 대상이 지닌 속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상황을 장황하게 열거하고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주어진 상황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극대화하고 있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세차(維歲次)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미망인(未亡人) 모씨(某氏)는 두어 자 글로써 침자(針子)에게 고하노니, 인간 부녀(人間婦女)의 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대, 세상 사람이 귀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회(情懷)가 남과 다름이라. ①**오호 통재(痛哉)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금(于今) 이십칠 년이라. 어이 인정(人情)이 그렇지 아니하리오.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行狀)과 나의 회포(懷抱)를 총총히 적어 영결(永訣)하노라.

연전(年前)에 우리 시삼촌께옵서 동지상사 낙점(落點)을 무르와,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쌍을 주시거늘, 친정과 원근 일가(一家)에게 보내고, 비복(婢僕)들도 삼삼이 나누어 주고, 그중에 너를 택하여 손에 익히고 익히어 지금까지 해포 되었던니, 슬프다, 연분(緣分)이 비상(非常)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되, 오직 너 하나를 연구(年久)히 보전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迷惑)하지 아니하리오.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도다.

나의 신세 박명(薄命)하여 슬하에 한 자녀(子女) 없고, 인명(人命)이 흉완(凶頑)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家産)이 빈궁하여 침선(針線)에 마음을 붙여, 널로 하여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 오늘날 너를 영결(永訣)하니, 오호 통재라,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로다.

아깝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바늘이여. 너는 미묘한 품질(品質)과 특별한 재치(才致)를 가졌으니, 물중(物中)의 명물(名物)이요, 철중(鐵中)의 쟁쟁(錚錚)이라.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百代)의 협객이요, 굳세고 곧기는 만고(萬古)의 충절(忠節)이라. ②**추호(秋毫)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고, 뚜렷한 귀는 소리를 듣는 듯한지라.** 능라(綾羅)와 비단에 난봉(鸞鳳)과 공작을 수놓을 제, 그 민첩하고 신기함은 귀신이 돕는 듯하니, 어찌 인력(人力)의 미칠 바리오.

오호 통재라, 자식이 귀하나 손에서 놓일 때도 있고, 비복이 순하나 명(命)을 거스릴 때 있나니, 너의 미묘한 재질(才質)이 나의 전후(前後)에 수응(酬應)함을 생각하면, 자식에게 지나고 비복에게 지나는지라. 천은(天銀)으로 집을 하고, 오색(五色)으로 파란을 놓아 곁고름에 채였으니, 부녀의 노리개라. 밥 먹

을 적 만져 보고 잠잘 적 만져 보아, 너로 더불어 벗이 되어, 여름 낮에 주렴(珠簾)이며, 겨울밤에 등잔을 상대하여,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공그릴 때에, 겹실을 꿰었으니 봉미(鳳尾)를 두르는 듯, 땀땀이 떠 갈 적에, 수미(首尾)가 상응하고, 술술이 붙여 내매 조화(造化)가 무궁하다. 이생에 백년 동거(百年同居)하렸더니, 오호 애재(哀哉)라, 바늘이여.

㉔ 금년 시월 초십일 술시(戌時)에, 희미한 등잔 아래서 관대 깃을 달다가, 무심중간(無心中間)에 자곤동 부러지니 깜짝 놀라와라. 아야 아야 바늘이여, 두동강이 났구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魂魄)이 산란하여, 마음을 뺏아 내는 듯, 두골(頭骨)을 깨쳐 내는 듯, 이윽도록 기색혼절(氣塞昏絕)하였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 보고 이어 본들 속절없고 하릴없다. 편작의 신술(神術)로도 장생불사(長生不死) 못하였네. 동네 장인(匠人)에게 때이런들 어찌 능히 때일손가. ㉕ 한 팔을 베어 낸 듯, 한 다리를 베어 낸 듯, 아깝다 바늘이여, 옷섶을 만져 보니, 꽃혔던 자리 없네. 오호 통재라, 내 삼가지 못한 탓이로다.

무죄(無罪)한 너를 마치니, 백인이 유아이사(由我而死)라, ㉖ 늪을 한(恨)하며 늪을 원(怨)하리오. 능란(能爛)한 성품(性品)과 공교(工巧)한 재질을 나의 힘으로 어찌 다시 바라리오. 절묘한 의형(儀形)은 눈 속에 삼삼하고, 특별한 품재(稟才)는 심회(心懷)가 삭막(索寞)하다. 네 비록 물건이나 무심하지 아니하면, 후세에 다시 만나 평생 동거지정(平生同居之情)을 다시 이어, 백년고락(百年苦樂)과 일시생사(一時生死)를 한가지로 하기를 바라노라. 오호 애재라, 바늘이여.

- 유씨 부인, <조침문>

16.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영탄법을 통해 바늘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② ㉒: 도치법과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바늘의 뛰어난 재능을 예찬하고 있다.
- ③ ㉓: 의태어를 사용하여 바늘이 부러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④ ㉔: 직유법과 과장법을 통해 바늘을 잃은 비통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㉕: 설의법을 통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①

‘유세차(維歲次)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은 제문의 형식이지만, 날짜가 ‘모년 모월 모일’로만 기재된 것은 윗글이 실제 제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② ‘미망인(未亡人)’은 남편을 잃은 처지임을, ‘슬하에 한 자녀(子女) 없고, 인명(人命)이 흉완(凶頑)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는 자녀가 없는 외로운 처지임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자녀가 일찍 죽은 것을 나타내는 부분은 아니다.

③ ‘가산(家産)이 빈궁하여 침선(針線)에 마음을 붙여, 널로 하여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에서는 글쓴이가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신분이 평민인지는 알 수 없다.

④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迷惑)하지 아니하리오.’에서는 글쓴이가 바늘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 있지만, 바늘이 글쓴이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혹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魂魄)이 산란하여, 마음을 뺏아 내는 듯, 두골(頭骨)을 깨쳐 내는 듯’을 통해 바늘이 부러진 것이 두개골이 부러진 것만큼 슬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정답] ②

㉞는 작가가 바느질을 하여 생계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① 글쓴이는 바늘이 부러진 것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㉞와 같은 제문 형식을 사용하였다.

③ ㉞는 바늘을 칭송하는 말로, 바늘에 대한 작가의 애착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④ ㉞는 은으로 만든 장식품에 유약으로 색을 올려 꾸몄다는 의미로, 바늘을 애지중지하는 작가의 마음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⑤ ㉞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부분으로, 작가가 바늘을 부러뜨린 스스로를 자책하는 말이다.

3. [정답] ③

선물 받은 바늘을 친척과 비복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글의 대상이 되는 바늘을 선택하였을 뿐, 글쓴이가 처음에 바늘에 별로 관심이 없고 바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① ‘미망인’은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인’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② 글쓴이가 바늘 한 개를 오랜 기간 보존하면서 소중히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심성 있고 알뜰한 성품임을 알 수 있다.

④ 가산이 빈궁하여 침선(바느질)에 마음을 붙였다고 한 것, 그래서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의 집안이 가난하여 바느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글쓴이의 시삼촌이 벼슬을 지내고 북경에 다녀왔다는 내용에서 글쓴이가 사대부 집안의 여인임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심정을 우아하고 감각적인 글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지적인 능력을 갖춘 여인이라 할 수 있다.

4. [정답] ⑤

㉞에서는 바늘이 자식이나 비복보다 낫다고 언급하며, 자신과 호흡이 잘 맞았던 바늘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내고 있다.

① ㉞에서 바늘이 제작되는 과정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다. ‘행장’은 부러진 바늘의 행적, ‘회포’는 부러진 바늘에 대한 추억과 슬픔을 의미한다.

② ㉞은 작자와 바늘의 인연이 평범하지 않음을 언급하며, 다른 바늘은 무수히 부러뜨렸지만, 추모하는 바늘은 오랫동안 보존하였다는 말을 하기 위해 언급한 내용이다.

③ ㉞에서 글쓴이는 바늘이 생명이 없는 물건이지만, 그런 바늘을 소중히 아꼈다는 말을 하고 있다. 섭섭한 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㉞에서는 후술되는 내용으로 보아 바늘이 가진 외모와 능력을 칭찬한다고 볼 수 있지만, 본인의 침선에 대한 능력이 뛰어남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5. [정답] ③

㉞에서는 바늘을 얻게 된 내력을 알리면서 바늘의 품질과 재주를 찬양하고 있다.

① 글쓴이는 ㉞에서 제문의 형식을 빌려 ‘유세차(維歲次)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로 시작하

고 있다.

② ㉠에서 27년 동안 사용하던 바늘이 부러져 글을 쓰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④ ㉢에서는 오랫동안 사용하던 바늘이 부러지게 된 과정과 그에 따른 글쓰이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⑤ ㉤에서는 제문과 달리 '상향(尙饗)'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지 않고, '오호 애재라, 바늘이여.'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6. [정답] ①

윗글에서는 바늘을 자식이나 비복과 비교하면서 우열을 정하고 평가하고 있다.

② 윗글에서는 대상인 바늘을 훌륭하다고 찬양하고 있지만 흠족해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백인이 유아이사'는 옛 중국의 왕도가 친구인 백인의 죽음을 두고 자책하면서 한 말이다. 바늘의 상황과 반대되는 고사를 인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윗글에서 대상인 바늘과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

⑤ 윗글에서 대상에 대한 원망과 비난은 나타나지 않는다.

7. [정답] ②

윗글은 조선 시대 국문 수필의 백미로 꼽히는 작품으로, 작가가 '유씨 부인'으로 나타나 있다.

① 윗글은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글인 제문의 형식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바늘에 대한 감정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③ 윗글의 글쓰이는 글쓰이의 감정의 흐름에 따라 4음보의 가사체 문장도 배합하였다.

④ '오호 통재라, 아깝고 불쌍하다'에 영탄법이, '물중의 명물이요, 철중의 쟁쟁이라.' 등에 대구법이, '추호 같은 부리'에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⑤ <규중철우쟁론기>는 규방에서 여성들에게 친숙한 사물인 바느질 도구를, 윗글에서는 바늘을 인격적 존재로 간주하여 표현하고 있다.

8. [정답] ③

이 작품은 대상인 바늘을 의인화하여, 관념성과 규범성을 벗어나 일상적인 체험과 느낌을 진솔하게 나타내었다.

① 윗글의 첫 부분에서는 27년간 사용하던 바늘이 부러져 글을 쓰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② 윗글의 글쓰이는 섬세하고 치밀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바늘이 부러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④ 글쓰이는 바늘을 얻었을 때 반갑고 관심이 갔고, 바늘을 사용할 때 마음에 끌리고 사랑스러워서 각별한 애정으로 대하였으며, 바늘이 부러졌을 때 한탄하고 슬퍼하며 애도를 표하였다.

⑤ '오호 통재라, 아깝고 불쌍하다'에 영탄법이, '물중의 명물이요, 철중의 쟁쟁이라.' 등에 대구법과 열거법이 사용되었으며, 이와 같은 표현법을 통해 글쓰이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9. [정답] ⑤

ㄱ. '추호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고, 뚜렷한 귀는 소리를 듣는 듯한지라.'에서 비유법에 속하는 직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ㄴ. '물중의 명물이요, 철중의 쟁쟁이라.', '한 팔을 베어 낸 듯, 한 다리를 베어 낸 듯'에 대구법과 열거법을 활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바늘에 대한 글쓰이의 애착이 컸음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ㄷ. '오호 통재라, 아깝고 불쌍하다'에 영탄법을 사용하여 글쓰이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ㄹ. 대상인 바늘을 의인화하여 바늘을 잃은 글쓰이의 애절한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ㄹ. 윗글의 마지막 두 단락에서 바늘이 부러졌을 때의 심정을 과장되게 서술하여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다.

ㅂ. 윗글에서는 4음보의 운율을 가진 가사체 문장을 배합하여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글 전체를 생동감 있게 만들고 있다.

10. [정답] ⑤

윗글은 한글로 창작된 국문 수필이다.

① 윗글은 섬세한 관찰력과 세련된 표현력으로 바늘에 대한 심회를 표현하고 있다.

② 바늘을 잃은 슬픔과 애도의 마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제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③ 윗글에 나타나는 '바늘이 부러진 일'은 글쓰이가

직접 경험한 일로, 이에 대한 소회를 섬세하게 드러내었는데, 이는 교술 갈래의 특징에 해당한다.

④ 남편과 자식이 없어 살아가는 글쓴이가 바늘이 부러졌을 때 느끼는 안타까움과 비통함은 의지할 곳 없는 당시 여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11. [정답] ④

㉠에서 바느질의 기법을 열거하는 열거법을 활용하였지만, 대상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① ㉠은 ‘아, 비통하다’라는 뜻으로, 영탄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직접 드러낸 부분이다.

② ㉡에서는 문장 구조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대구법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에서는 직유법과 의인법, 대구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⑤ ㉤에서는 바늘이 부러졌을 때의 심정을 과장되게 서술하여 글쓴이의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다.

12. [정답] ④

윗글에서 문답의 형식을 활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① 윗글은 바늘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추호(秋毫)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고, 뚜렷한 귀는 소리를 듣는 듯한지라.’, ‘한 팔을 베어 낸 듯, 한 다리를 베어 낸 듯’에서 바늘을 다른 대상에 비유한 표현 중 하나인 직유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윗글은 섬세한 표현력과 바늘에 대한 다정다감함이 나타나는 문체를 통해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숙한 소재인 바늘이 등장한다.

13. [정답] ②

귀신과 하늘이 시기하였다는 구절은 바늘과 글쓴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① 윗글의 마지막 부분에 동거지정, 백년고락, 일시생사 등의 사자성어를 활용하여 후세에서 재회할 것에 대한 기약을 소망하고 있다.

③ ‘아야 아야’와 같은 감탄사를 활용하여 대상이 부러지는 순간의 정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바늘이 부러져 글을 쓰게 되었음을 밝히면서 바늘을 얻게 된 내력, 바늘의 품질과 재주,

바늘이 부러지게 된 과정과 그에 따른 슬픔을 밝히고 있다.

⑤ 글쓴이는 섬세하고 치밀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의인화의 기법을 통하여 바늘을 살아 숨 쉬는 생명체처럼 표현하였다.

14. [정답] ⑤

이 작품의 작가는 여성이지만, 절제된 표현보다는 과장법과 영탄법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고, 문답하는 형식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① 윗글은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한 소회를 제문 형식을 빌려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교술 갈래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② 제문은 죽은 이를 추모하는 글로, 윗글에서는 제문의 형식을 빌려 바늘을 의인화하여 바늘을 잃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윗글은 영탄, 대구, 열거, 직유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오호 통재라’에서는 영탄적인 어조를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④ 윗글은 산문이면서도 연속된 대구 형식, 열거, 4음보의 가사체 문장 등을 통해 운문적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과장법을 활용해 바늘의 재주를 칭찬하기도 하고, 마지막 두 문단에서는 바늘을 잃은 슬픔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15. [정답] ①

윗글은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오호 통재라’와 같은 영탄적 표현을 통해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물중의 명물이요, 철중의 쟁쟁이라.’, ‘한 팔을 베어 낸 듯, 한 다리를 베어 낸 듯’과 같은 부분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나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는 대구의 방법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윗글은 대상인 바늘을 의인화하여 바늘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대상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④ 윗글은 바늘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바늘의 속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⑤ 바늘이 부러진 상황을 장황하게 열거하고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주어진 상황에 대한 글쓴이 자신의 슬픔의 정서를 극대화하고 있다.

16. 정답 ②

㉠에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바늘의 뛰어난 재능을 예찬하고 있지만 도치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① ㉡에서는 영탄법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바늘을 잃은 글쓴이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③ ㉢에서는 ‘자곤동’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바늘이 부러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④ ㉣에서는 직유법과 과장법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바늘을 잃은 비통한 마음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⑤ ㉤에는 강조를 위한 의문문인 설의법을 통해 바늘이 부러진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고 있다.